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 9.7.~9.11.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27개소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지청장 연창석)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관내 제조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감소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제조업 사업장 고위험 기계·기구 사고사례

- ❖ [지게차] '26.6.1. 경남 김해시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설치 작업중 떨어짐
- ❖ [크레인] '26.6.27. 전남 영암군 천장크레인으로 인양중인 선박부품에 맞음
- ❖ [컨베이어] '26.6.8. 경기 용인시 컨베이어 작업중 구동축에 끼임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갈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갈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중 끼임·떨어짐·맞음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주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문규 (043-279-5140)
		담당자	근로감독관	고병진 (043-279-5106)